

dardos que antes son vistos, e mejor nos podemos guardar de lo que ante hemos visto.
(p. 110)

사도 [바울]이 명하시길 모든 것을 직접 겪어보라.
Provar todas las cosas, el Apóstol lo manda. 950a

인간이 모든 것을 겪어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선과 악을 알고나서 그 중에 나은 것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Provar omne las cosas non es por ende peor
e saber bien e mal e usar lo mejor. (76cd)

따라서 비록 이 책이 악행을 다루고 있다해도 독자로 하여금 악을 경계하
고 선을 행하려는 의도로 쓰여졌고 독자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도덕주의자
들이 작가를 비난할 수 없게 된다.

본문에서도 작가는 자신의 여성 편력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합리화한다.
첫째, 사랑을 찾는 것은 본성의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 그 자
체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현인[아리스토텔레스]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확히 증명된다.
인간, 조류, 동물, 동굴의 모든 미물들은
그 본성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짝을 구한다.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인간은 더욱 그러하다.
Que diz verdat el sabio clara mente se prueva
omnes, aves, animalias, toda bestia de cueva
quieren segun natura compañía sienpre nueva
e quanto más el omne, que a toda cosa se mueva. (73)

나 역시 다른 죄인들처럼
여자들에게 대해 언제나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있다.
E yo como soy omne commo otro pecador,
ove de las mugeres a las vezes grand amor (76ab)

신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자를 사악한 것으로 보셨다면
남자에게 짝으로 주시지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을 위함이 아니라면 그만한 고귀함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Si Dios, quando formó el omne, entendiera
que era mala cosa la muger, non la diera
al omne por compañera, nin dél non la feziera;
si para bien non fuera, tan noble non saliera. (109)

둘째, 여성 편력은 주인공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너스 좌에서 태어나며 그들은 삶의 대부분 동안
여자를 사랑하며 결코 잊지 못한다.
끝없이 갈구하며 열기 위해 노력하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
Muchos nascen en Venus, que lo más de su vida
es amar las mugeres, nunca se les olvida;
trabajan e afanan mucho, sin medida,
e los más non rrecabdan la cosa más querida. (152)

그 별자리에서 나도 태어났다고 믿고 있기에
나는 언제나 알고있는 모든 여인들을 섬기려 한다
En este signo atal creo que yo nascí:
siempre puné en servir dueñas que conoscí; (153ab)

그런데 별자리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표식이므로 주인공이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따라서 여성 편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사랑이 해로운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운명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특히 156-157연은 사랑의 유익함을 열거한다. 사랑은 거친 인간을 섬세하게 하고, 말없는 자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게 하며 비겁한 자를 용감하게,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한다. 또 젊은이에게는 그 젊음을 유지시키고 노인에게는 노쇠함을 이기게 해준다,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습관의 완고함이다.

현인[아리스토텔레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과 습관을 버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습관은 확실히 또 다른 천성이며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Como dize el sabio, cosa dura e fuerte
 es dexar la costunbre, el fado e la suerte;
 la costunbre es otra natura, çierta mente;
 apenas non se pierde fasta que viene la muerte. (166)

그리고 다음 연에서는 항상 애인을 갈망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상 습관이므로 자신도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연인을 구한다고 말한다.

후안 루이스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합리화의 도구는 불확실한 저자성(著者性, *autoría*)이다. 이 말은 그가 텍스트의 저자임을 부정한다는¹⁹⁾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창작으로 보지 말라는 의미이다. 작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자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데, 하나는 “돈 멜론과 도냐 엔드리나” 이야기(*don Melón y doña Endrina*, 596-891년)처럼 널리 알려진 『*Pamphilus*』라는 라틴 희곡의 줄거리를 충실히 모방하고²⁰⁾ 그 사실을 이야기의 마지막 연에서 명시한다.

엔드리나와 멜론은 결혼으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당연히 이 결혼에 기뻐했다.
 혹시 내가 천박한 이야기를 했다면, 용서하시라 독자들이여.
 이 이야기의 부정함은 뻔필로와 나손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Doña Endrina e don Melón en uno casados son;
 alegran se las conpañas en las bodas con rrazón.
 Si villanía he dicho, aya de vós perdón,
 que lo feo de la estoria diz Pánfilo e Nasón. (891)

19) 르네상스 시대에서 도덕주의자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기사소설에서 주로 쓰였던 방식으로 작가는 자신을 지은이가 아니라 번역가 혹은 단순히 출판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소개한다.

20) 이는 줄거리에만 한정된 것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중세 오비디우스 풍의 문학(*literatura ovidiana*), 특히 『*De Vetula*』가 이 이야기의 모델로 거론된다.

또 다른 방식은 독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초대함으로써 궁극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내가 말했던 것들을 독자들은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나의 실수는 당신들의 교정에 맡긴다.
 aquesto que yo dixiere, entendet lo vós mejor;
 so la vuestra enmienda pongo el mi error. (1135cd)

이 책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만약 시를 잘 지을 줄 안다면,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Qual quier omne que lo aya, si bien trobar sopiere,
 puede más y añadir e enmendar, si quiere. (1629ab)

마지막으로, 작가는 『데카메론』과 같은 단편 소설(novelle)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쾌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에 따르면 슬픔은 인간을 최악으로 이끌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즐거움이 필요하며 이 이야기가 그러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인[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며 까뎬도 그렇게 말했다.
 가슴에 고통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을 불어넣어 이성을 기쁘게 해야한다.
 커다란 슬픔은 많은 죄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Palabras son de sabio, e dixo lo Catón
 que omne a sus coidados que tiene en corazón
 entreponga plazer e alegre la rrazón
 que la mucha tristeza mucho pecado pon. (44)

이렇듯 『선한 사랑의 이야기』는 언어적 애매성, 독자의 책임, 악을 알아야 경계할 수 있다는 교훈, 짝을 찾는 인간의 본성,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사랑의 유익함, 습관의 완고함, 저자성의 회피, 쾌락의 필요성을 통해 불순한 내용과 쾌락의 추구를 합리화한다. 이러한 합리화의 방식들은 황금세기 특히 반동종교개혁 시대의 텍스트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스페인 문학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서문에서 표방된 교훈과 기도문은 은밀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립서비스이며, 작가가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여, 내 비록 재주가 미천하나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방랑 시인을 빌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Señores, he vos servido con poca sabiduría:
por vos dar solaz a todos, fablé vos en juglería. (1633cd)

맺 음 말

결국 중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쾌락은 인간의 본능과 소일거리의 필요를 낳은 일종의 용서할 수 있는 변칙으로, 또 인간의 불완전성과 연약함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시학은 '당의정'의 개념을 통해 쾌락을 교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만약 예술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쾌락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는 원심력과 이를 통제하려는 구심력 사이의 대립, 투쟁, 화해의 반복적 순환이라면, 억압의 시대에서도 쾌락을 위한 모색은 비록 방어적이고 우회적일 지라도 분명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학이 보여주는 쾌락의 합리화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지표가 된다. 이는 단순히 기법의 차용이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자의적 도피 기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담겨있는 이중성, 그리고 상상력의 자유와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모순적 요소들의 충돌과 조화라는 보다 커다란 담론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문학이 추구하는 당위가 있다면 그것은 통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존 속에서 모순적으로 보일 만큼 다양한 의미의 켜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문학의 경우에서도 중세에서 근대 초입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호라티우스의 공리와 '당의정'의 개념은 하나의 의미만을 담보하지 않는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문학의 목적에 대한 시학적 명제가 한편에서 교훈을 위한 수단으로 쾌락을 한정시켰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표방하는 그 자체가 쾌

락을 은밀히 추구하기 위한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들은 이 개념이 종종 즐거움의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 도덕주의자나 검열관에게 제공되는 입바른 말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서문의 도덕적 의도와 본 텍스트의 불일치, 이론과 창작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쾌락의 합리화 문제를 통해 살펴본 스페인 중세 문학은 단일한 시학적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호라티우스가 문학의 목적을 교훈과 즐거움 사이에서 논의했다면 스페인 중세는 그 사이에 건전한 즐거움과 즐거운 교훈이라는 또 다른 의미층들을 생산해 낸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모순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의미층의 공존에 스페인 중세문학의 풍성함이 있으며, 이 풍성함은 이후 바로크를 거치면서 '빛과 어둠' 혹은 표상과 본질의 불일치로 규정되는 스페인 문학의 원류를 형성한다.

《ABSTRACT》

Justificaciones Del Entretenimiento Como un Objetivo de
la Literatura en Los Textos Medievales Españoles

Kyung-Bum, KIM

El propósito de este estudio es indagar las justificaciones del entretenimiento considerado como deseo vicioso en la literatura medieval española. Al abordarlas hemos analizado tres obras: *El conde Lucanor* de don Juan Manuel, la *Disciplina Clericalis* de Pedro Alfonso y el *Libro de Buen Amor* de Juan Ruíz. Mientras que *El conde Lucanor* constituye el prototipo de la literatura didáctica medieval, la primera obra del *exemplum -Disciplina Clericalis-* y la obra maestra de Juan Ruíz nos servirán de las fuentes para nuestro objetivo. Como es bien sabido, desde la Edad Media hasta el Barroco (tal vez hasta nuestros días) el concepto fundamental sobre la meta de la literatura es el “deleitar aprovechando”, tópico horaciano manifestado en su *Ars Poetica* (vv. 333-334). En cuanto a los sentidos de este tópico, tenemos en cuenta que el placer y el didactismo no poseen un valor igual: es decir, el tópico horaciano y el término medieval de “píldora dorada” significan que el verdadero objetivo de la literatura es la enseñanza moral y científica, y que el entretenimiento no llega a ser más que un instrumento para obtenerla. Sin embargo, es muy cierto que el deseo o instinto del ser humano que quiere divertirse no es tan débil para ser aplastado por un dogma moral, ni se conforma con la exigencia de necesidad. Naturalmente se esperan las cosas para el entretenimiento en los horizontes expectativos de los escritores y lectores. No obstante, los autores no pueden declarar aparentemente la intención placentera por el miedo a la censura o por la auto-censura. Ante esta situación hostil al

placer, los autores procuran buscar unas maneras para conseguir un lugar de entretenimiento evitando las posibles críticas. La más común de ellas consiste en ponerse la máscara didáctica para encubrir la intención placentera. Aquí surge la antinomia entre el prólogo y el texto-corpus, que probablemente muestra un fenómeno de la modernidad.

La obra de Pedro Afonso hace hincapié en esta antinomia, proponiendo, además, que juzgar si una obra es didáctica no pertenece al autor sino al libre albedrío de los lectores. Así, el autor queda exento de la responsabilidad de su obra. Sobre todo, con la táctica de restringir los lectores a frailes, logra a desaparecer la posibilidad de que su obra sea mal interpretada. Si el autor judío converso justifica el placer con la moralidad de los lectores, Juan Ruiz lo hace con la ambigüedad del lenguaje. Éste nos advierte que el lenguaje se presta siempre a diversas interpretaciones, y que elegir entre las posibles es la responsabilidad del lector. Esta idea, basada en el voluntarismo de San Agustín, es una defensa legítima contra las acusaciones de mala fe o de intenciones inmorales, porque el mal “está en el ojo del que lee, y no en el libro”. Con lo cual el autor, una vez que declara la intención didáctica en el prólogo, puede narrar cualquier cosa, que sea un vida santa o un adulterio. En esta justificación se interviene también un pretexto estereotipado que conocer el mal es útil para rechazarlo. En cuanto al argumento, el autor autojustifica su porfía en la busca del amor carnal con la naturaleza biológica del hombre, con el carácter ineludible de su destino individual y con la pertinacia de la costumbre. Además, da énfasis en la utilidad del amor: pues, el amor es bueno para mantener la juventud y la salud corporal y mental. Sin embargo, las justificaciones más peculiares se encuentran en la incertidumbre de la autoría. Es decir, el autor imita fielmente una comedia latina muy conocida para la historia de doña Endrina y don Melón y invita a los lectores corregir su obra cuando no les cae bien.

Desde el punto de vista de la estética medieval, el entretenimiento debe ser

considerado como una recreación perdonable y una prueba de la debilidad humana. Sin embargo, el término de “píldora dorada” se utiliza en dos vertientes opuestas: por un lado, es un reflejo del canon oficial; por otro lado, al contrario, una máscara para encubrir el placer sensual. Por consiguiente, a través de las justificaciones del placer podemos apereibir que la literatura medieval española no puede explicarse por una idea estética. Si Horacio pone en tela de juicio el objetivo de la poesía entre el deleite y el didactismo, los autores medievales intermeten a ambas categorías dos estratos semánticos y interpretativos más. Aquí reside la riqueza de la literatura medieval. La confluencia de diversas interpretaciones a un mismo texto llega a constituir la tradición auténtica de la cultura española, denominada como la convivencia de “sol y sombra” o desacuerdo entre fondo y forma.

검색어 : 스페인 중세문학, 쾌락의 합리화, 당의정, Disciplina Clericalis, Libro de Buen Amor